선민의 역선택, 이 하나면 된다

(느헤미야 9:1~38)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뱌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의 역선택, 이 하나면 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의 역선택, 이 하나면 된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8장 10절 하반절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7월 1일부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말씀의 뜻을 풀이하며 가르쳤습니다. 1절에 '그 달 스무나흗 날'이라고 나오는데 초막절이 지나가고 이틀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3주가 넘게 율법 공부가 계속되자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앞서 말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의 의미에 입각해서 민족의 역사 1500년을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적 관점까지도 얻게 되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삶의 문제에 대한 열쇠도 얻게 됩니다.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구절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서에서 최고의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만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 다섯 명의 대통령후보가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내게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틀이 우리의 상식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자기가 기쁘게 여기는 후보에 대해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국민의 마음에 기쁘게 여겨지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힘이 주어집니다. 대통령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국민들이 힘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 내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힘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마땅하게 여겨서 지지한다면 내게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정작 힘은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실 때에 내게 힘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 구조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데 내게 힘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3주간 율법을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면 내게 힘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힘이 내게 주어집니다. 이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power로서의 힘이 아닙니다. 히브리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산꼭대기, 요새, 성채, 방파제와 같은 방어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를 기뻐하면 공격의 힘이 아니라 방어의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육의 기간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서 이해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을 알아갈수록 회개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준해서 자기들의 형편을 돌아보니 태어나면서부터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바벨론의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왕을 섬기고 세금을 내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이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진입하고 정착하고 그 이후로 앗수르에 의해 북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 왕국이 망하게 되는 길고 긴 천년이 넘는 역사를 밝히 보게 되는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구절은 선민이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청진기였고 선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표였습니다. 이 한 구절로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이해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것으로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바로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성경을 이해하는 눈, 내 삶을 바라보는 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이 구절을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봅니다. 5절을 보면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라서 모든 송축과 찬양에서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찬양하며 돈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형통을 마음의 기쁨으로 여겨서 자녀의 형통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외모를 송축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송축과 찬양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송축하는 이름들이 많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그 모든 송축의 대상들 위에서 1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선택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받을 만한 모든 이름위에 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는 돈을 송축하고 건강을 송축하고 자녀의 형통을 송축하고 외모를 송축하고 권력을 송축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송축을 받으며 모든 국민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1등이 되어야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선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송축하든 자녀를 송축하든 대통령 자리를 송축하든 건강과 외모를 송축하든 내버려둡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송축과 찬양의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역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역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1등으로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역선택을 함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이유를 자녀의 형통이나 외모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이 역선택이 방어의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주간 율법을 공부하며 깨달은 이 방어의 힘이 무엇인지 6절부터 나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공간 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과는 다른 피조물들의 공간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공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체질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입되고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곳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빛과 질서가 생겨나며 삼라만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힘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공간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밀려나고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동안 뜻 바깥으로 밀려나서 사라지기만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은 백합화에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산과 바다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인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나는 새를 먹이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지를 죽여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심을 믿고 내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나고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밀려나고 억제됩니다.

이렇듯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씀에서의 힘이 내가 자발적으로 발휘하고 성취하게 하는 공격적인 힘이 아닌 방어적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로 기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고 선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삶을 덮어버리는 것을 막는 힘이 됩니다. 삶에 혼돈이 없어지면 질서와 평안이 생겨납니다. 공허가 억제되면 결실이 맺힙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치의 결실이 주어지고, 일 년을 살면 일 년만큼의 결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뿌듯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흑암이 억제되어서 항상 내 걸음이 진리와 밝음 가운데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실족하여 넘어짐이 없는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선택의 효과입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일찍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기쁨으로 믿고 있었던 족속들이 머물렀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살지 않았던 광야를 푸른 동산으로 바꾸어서 살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세상에 찌들은 이방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던 땅을 주신 것입니까? 이는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기뻐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역선택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말씀 속에는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고 선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신 역선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이제는 역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길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역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쌓인 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져서 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제는 역선택 하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 역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로 선택한 모든 것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오직 나를 선택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역선택함으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평생 끝날 까지 억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